

스페인어 범주전환에 대한 연구

마 상 영
단국대, 서어학

1. 서론

20세기초,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전환(transposición) 또는 범주전환(transcategorización) 개념은 형태론적 분야에서뿐 아니라 통사론 분야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전환(transposición)은 라틴어 *transponere*에서 파생한 *transpositio*에서 유래하였으며, 전환행위 또는 전환효과¹⁾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형(transformación)의 의미와도 유사하나, 통사론 분야뿐 아니라 형태론 분야에도 적용되므로 실제 이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A. Sechehaye(1950)와 Ch. Bally(1964)²⁾는 비록 완전히 확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이 전환개념을 도입하였다. Ch. Bally³⁾에 의하면, 전환(그는 *traslación*이라고 명명함)은 두 단어 혹은 상이한 특성의 단어연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말하자면, 전환은 하나의 과정으로 그 과정을 통해 어떤 통사소가, 그 의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기능을 수행한다.

그후 Lucien Tesnière⁴⁾는 전환(그도 또한 *traslación*라는 용어 사용)이 한 어휘범

1) Cf. RAE(1983),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pág. 1332.

2) Cfr. A. Sechehaye(1950), *Essai sur la structure logique de la phrase*, Edouard Champion, Paris; Ch. Bally(1964),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Francke, Berne.

3) 그의 아이디어는 Jean Dubois y Otros(1979),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Alianza Editorial, Madrid, pág. 612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전환을 "relación que existe entre dos palabras o series de palabras de diferente naturaleza, pero con idéntica función"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4) 이런 아이디어는 Lucien Tesnière(1969),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주를 다른 범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있다.⁵⁾ 예를 들어, el libro de Pedro 연쇄에서, Pedro는 전치사 de를 통해서 전환을 겪게 되고, 따라서 de Pedro는 el libro rojo내의 rojo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형태론적으로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Pedro는 형용사의 통사기능을 얻게 된다. 즉, 전환에서는 범주가 기능면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Tesnière에 따르면, 범주전환은 두 가지 유형 —첫 단계의 범주전환과 두 번째 단계의 범주전환—으로 나뉘어 진다. 전자는 (예를 들어, 전치사를 통해) 동일 수준의 범주들을 연관시키는 것인 반면 후자는 (접속사, 관계사 등과 같은 문장적 전환소들을 통해) 통사수준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된 문장(oración transpuesta)은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이 상위의 계층구조(소위, 주절)내에서 하나의 요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개념에 많은 기능문법주의자들이 의존하고 있다: Emilio Alarcos Llorach(1991, 3ª ed. de 1970), J. Francisco Val Alvaro(1981),⁶⁾ J. Antonio Martínez(1982),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1985), H. Martínez García(1986), Serafina García García(1990) 등등. E. Alarcos Llorach(1991)⁷⁾은 두 가지 유형의 문장적 전환소를 가정하고 있다: 문장을 핵적 통사소(término nuclear)로 전환시키는 *que*₁와, 문장을 명사적 그룹내 인접 통사소(término adyacente)로 전환시키는 *que*₂. 말하자면, *que*₁은 문장을 문장내 하부요소로 전환시키고, 일반적으로 명사가 수행하는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관계사 *que*₂는,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문장에 부여하게 된다. 문장에서 SN기능에로의 전환을 Alarcos는 직접적 전환(transposición inmediata), 그리고 형용사기능에로의 전환을 간접적 전환(transposición mediata)⁸⁾이라고 부르고 있다. J.A. Martínez는 전환을 하나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통사 또는 통사적 그룹의 전이(轉移)로 정의하고 있다.⁹⁾ Gutiérrez Ordóñez도 Tesnière의 전환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그것을 문법

2ª ed., Editions Kincksieck, París의 151장(1절과 7절)에 나타나 있다.

5) Cfr. L. Tesnière(1969), *Op. cit.*, pág. 364.

6) José Francisco Val Alvaro(1981), "Grupos nominales con /DE/ en español moderno(complementos de cualidad)", *LEA* 1-1, págs. 49-72.

7) Emilio Alarcos Llorach(1991),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3ª ed., Editorial Gredos, Madrid, pág. 242.

8) *Ibid.*, pág. 185.

9) José Antonio Martínez(1982), "Acerca de la transposición y el aditamento sin

적 범주의 완전한 단어에서 다른 문법적 범주로의 전환¹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사적 전환(transposición sintáctica)은 범주전환(transcategorización)이라 여기고 있다; 즉, 하나의 전환이 통사 기능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 변화는 범주에 이루어진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이런 범주내 변화는 몇몇 통사소들로 하여금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제한된 기능들을 수행하게 한다. 꼭 같은 아이디어를 H. Martínez García¹¹⁾도 공유하고 있는데, 그녀는 전환을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통사 또는 통사그룹의 전이라고 여기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의 해석을 하나 추가하고 있다: 전환은 어떤 통사소들이 그 자체로 지닐 수 없는 기능을 가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수단이라고 여긴다.

전환을 다루어 온 스페인문법학자들은 다양한 전환의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José Antonio Martínez(1982)는 한 범주에서 타범주로의 전환과 파생전환 또는 상이한 파생으로 이루어진 범주화(categorización)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Gutiérrez Ordóñez(1985)도 다른 용어들을 가지고 똑같은 구분—즉, 통사적 전환인 분석적 전환(transposición analítica) 그리고 파생적 전환인 통합적 전환(transposición sintética)으로 대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의 개념을 H. Martínez García(1986)가 표현하고 있다. 자 이제, 전환에 대한 이들의 이론전개를 살펴보도록 하자.

preposición", *AO*, XXXI-XXXII(1981-1982), pág. 496.

- 10) Gutiérrez Ordóñez(1984a)는, "Conceptos básicos en la teoría de la transposición sintáctica"(en *Lecciones del I y II: Curso de Lingüística Funcional*(1983-1984), Universidad de Oviedo, Servicio de publicaciones, pág. 77)에서, 전환이 기능이 아닌 통사범주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논거에 따르면, *Esto no es justo* ≠ *Este no es el justo* o *Esto no es lo justo* 과정내의 형용사 justo는 주격보어에서 주어로의 기능전환을 겪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에서 명사로의 범주전환을 겪는다. 이러한 논거는 우리들이 보기에 타당한 것 같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형용사는 일련의 기능들—주격보어, 명사수식어, 목적격보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환은 형용사가 위에 언급한 기능들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이론범주내에서는, 관사는 전환소가 아니다. 따라서, lo justo구문내에서는 다른 유형의 전환(추상적 전환)이 일어난다: 형용사에서 명사로의 범주전환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 11) Hortensia Martínez García(1986), *El Suplemento en Español*, Gredos, Madrid, pág. 45.

2. 전환에 관한 이론들

2.1. José Antonio Martínez(1982)

전환을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전이로 간주하면서, José Antonio Martínez (1982)는 스페인어에서 전환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¹²⁾

- 동사 (문장) → 명사-전환소: *quel*, 명사절 이끄는 *si*¹³⁾
- 동사 (문장) → 형용사-전환소: *que2*, 관계부사
- 동사 (문장) → 부사-전환소: 조건의 *si* 등¹⁴⁾
- 명사 → 부사-전환소: 동사그룹내 전치사들
- 명사 → 형용사-전환소: 명사그룹내 전치사들
- 부사 → 형용사-전환소: 명사그룹내 전치사들
- 부사 → 명사-전환소: 관사
- 형용사 → 명사-전환소: 관사
- 부사 → 부사-전환소: 전치사 등)

J. A. Martínez는 스페인어에는 <명사 → 동사 (문장)>, <형용사 → 동사>, <부사 → 동사>의 전환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전환을 겪는 단위들이 통사소 또는 통사소적 그룹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José Antonio Martínez(1982), *Op. cit.*, págs. 497-498.

13) 의문의 의미가 간접의문사 *si*보다는 주동사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의문이 *Dime si vienes*에 존재할 수 있으며 (*Dime que vienes*에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Preguntó si vendrían en coche o en tren*에는 거의 의문이 없을 것이고, *Ignoro si vino o no*에는 전혀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Cfr. *Ibid.*, pág. 497, nota nº 11.

14) J.A. Martínez는 이러한 전환에 *como(condicional)*, *como(causal)*, *Conforme*, *Según (que)*, *Mientras que*, *Apenas (que)* 등 다양한 단위들이 참여한다. 복합적인 단위들도 포함하고 있다: “몇몇은 단일 전환소를 내포하고 있으며(<부사 + QUE₂>: *ahora que*, *siempre que*, *Tan... que*, *Más que*, etc.); 다른 것들은 두개의 전환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전치사 + QUE₁>: *Desde que*, *Porque...*; <부사 + 전치사 + QUE₁>: *Además de que*, *Aparte de que...*; <전치사 + 명사 + QUE₂>: *A medida que*, etc.); 마지막으로, 몇몇에서는, 3가지 전환소까지 합체되어 있다(<전치사 + 명사 + 전치사 + QUE₁>: *A fin de que*, *So pretexto de que*, etc.).” *Ibid.*, pág. 497, nota nº 13.

또한 그는 파생적 전환 또는 상이한 파생들을 허용하며, 이들내에서 전환을 겪는 단위들은 통사소들이 아니라 어휘소들이라 주장하고 있다: *tornillo* → *atornillaste*, *blanco* → *blanqueaste* 또는 *cerca* → *acercaste*. 이러한 범주화(categorización)에 대해, 그는 어휘소들이 명사, 동사, 형용사 등과 같은 범주들을 표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saltos나 saltan내의 어휘소(lexema)는 어떤 범주를 표현하는가? 결국, 그는 어휘소들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나, 접사들(afijos)과 더불어 범주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S. Gutiérrez Ordóñez(1985)

이전의 기준을 따라, Gutiérrez Ordóñez¹⁵⁾는 전환은 두 가지 형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 통합적 전환(파생적 전환): 범주가 파생에 의한 변경의 결과로 변함.

blanco → *blanquear*

- 2) 분석적 전환(통사적 전환): 범주가 통사외적인 요소들을 통해 변함.

Corea → *de Corea*.

더욱이, Gutiérrez Ordóñez¹⁶⁾는 전환에 몇가지 통사적 제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각각의 범주는 자신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주어진 기능은 하나 또는 여러가지의 구체적 범주들에 의해 수행되어 지지, 모든 범주들에 의해 수행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무 범주가 아무 기능을 마구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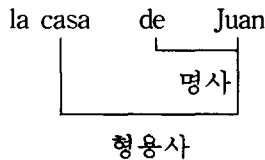
2) G. Ordóñez는 외현적인 전환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문법적 범주의 전환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여, 우리는 범주전환이 전환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Tesnière의 가정¹⁷⁾을 지지하겠다.

15) S. Gutiérrez Ordóñez(1984a), *Art. cit.*, pág. 77.

16)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1985), "Sobre las categorías, las clases y la transposición", *Contextos*, III/5, págs. 98-99.

3) 전환소는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따라서, <전치사 + 명사>구문에서 전치사는 전환소처럼 기능해야 한다.

4) 전환이 일어나면, 결과로 나타나는 [전환소 + 피전환자]연쇄는 결과로 나타나는 범주의 구성요소로 행동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원래의 범주 또는 또다른 범주로 돌려 놓으려면, 다른 새로운 전환을 적용시켜야 한다.



5) 원래의 문법범주와 전환결과 나타나는 범주는 달라야 할 것이다.

2.3. H. Martínez García(1986)

H. Martínez García(1986)¹⁸⁾는 파생전환의 문제를 분석한다. 그녀의 판단에 따르면, 많은 접사들이 몇몇 어휘소들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그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몇몇 접사들이, 다른 어휘소들과 결합된 채, 이 어휘소들을 어떻게 명사로 전환시키는지 보여준다:

1) <몇몇 형용사어휘소 + 접미사> → 명사

grand + eza → grandeza

brav + ura → bravura.

loc + ura → locura.

acid + ez → acidez.

17) Tesnière의 의견은, G. Ordóñez(1984a), *Art. cit.*, pág. 78에서 인용되고 있는 데, 전환이 전환소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translation sans translatif -(이 생각은 L. Tesnière(1969), *Op. cit.*, pág. 380에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Tesnière의 의견에 동의하여, 소위 “추상적 전환(*transposición abstracta*)”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전환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18) H. Martínez García(1986), *Op. cit.*, pág. 44.

2) <몇몇 동사어휘소들 + 접미사> ⇒ 명사

am + ante ⇒ amanteoy + ente ⇒ oyentecom + edor ⇒ comedor

3) <접두사 + 명사적 어휘소 + 접미사> ⇒ 동사

em + barc + ar ⇒ embarcara + pedre + ar ⇒ apedrearen + lat + ar ⇒ enlatar

4) <접두사 + 형용사어휘소 + 접미사> ⇒ 동사

en + rojec + er ⇒ enrojecera + cobarde + ar ⇒ acobardaren + vilec + er ⇒ envilecer(접두사 없이: azul + ar ⇒ azular)

5) <접두사 + 부사통사소 + 접미사> ⇒ 동사

a + cer + ar ⇒ acercara + lej + ar ⇒ alejar

6) 몇몇 형용사 + 접미사 -mente ⇒ 부사

difícil + -mente ⇒ difícilmentealegre + -mente ⇒ alegrementetímido + -mente ⇒ tímidamente7) 성·수 형태소의 중화(neutralización)¹⁹⁾vinieron rápidotrabajan durole pegan fuerte

그녀는 또한 동사어휘소들과 접미사 /-ar, -er, -ir/, /-ando, -iendo/, /-ado,

19) 이러한 중화(neutralización)는, 우리들이 보기에, 형용사 *rápido, duro, fuerte, etc.*에서 부사 *rápido, duro, fuerte, etc.*으로의 전환을 가정하면 추상적 전환에 기인하고 있다.

-ido/와 결합하여, 부정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파생전환을 거론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는 덧붙여 그러한 접미사들이 또한 문장적 전환소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추가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살펴보겠다.²¹⁾

3. 범주전환에 대한 우리들의 논거

3.1. 범주전환의 정의 및 분류

범주전환은 어휘, 형태, 통사 등 다양한 언어학 분야들에서 야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더 자세한 정의들이 필요하다. 파생적 전환(또는 통합적 전환)은 두 가지 유형: <어휘소 +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범주화와 파생적 추상적 범주전환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1.1. 파생적 전환

3.1.1.1. 범주화(categorización)²²⁾: <어휘소 + 접사>

1) 명사어휘소에서 동사로:

em + barc- + ar ⇒ embarcar

20) H. Martínez García(1986), *Op. cit.*, pág. 45.

21) 이러한 개념은 만약 우리가 파생적 전환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사, 현재분사(gerundio) 그리고 과거분사가, 동사의 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문장이 아닌 종속절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가치가 있을 것이다.

22) H. Martínez García(1986)의 범주화에 대한 제안은 유용하나 우리들이 보기에 크게 제한되어 있다. Cfr. H. Martínez García(1986), *Op. cit.*, pág. 46.: “어쨌든, 파생어들, 접미사 그리고 접사들은 실제로 어떤 범주에서 타범주로 전환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로 어떤 구체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어휘소(lexemas)를 범주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자체로 동사적인, 명사적인 또는 형용사적인 어휘소들이 존재한다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범주화에 대해 얘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야기되어지는 것이 한 범주에서 타범주로의 전이가 아니라 범주의 형성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추가하여 접사의 범주전환을 추가하고자 한다. 접사가 잘 정립된 하나의 범주에서 타범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aus- + -ar → causar

-tornill- → atornillar

2) 동사어휘소에서 명사로:

com- + edor → comedor

acusa- + ción → acusación

tem- → temor

3.1.1.2. 형태론적인 또는 파생적 범주전환:

<독립된 품사(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 접사>

1) 명사에서 동사로: temor → atemorizar

árbol → enarbolar

2) 동사에서 명사로: comportar → comportamiento

3) 형용사에서 부사로: fácil → fácilmente

4) 명사에서 형용사로: amor + oso → amoroso

5) 부사에서 동사로: adelante + ar → adelantar

6) 동사에서 형용사로: temer + oso → temeroso

3.1.1.3. 파생적 추상적 범주전환

1) 부사 → 명사: bien → (el) bien

2) 부정사 → 명사²³⁾: saber → saber(es)

ir y venir → el(los) ir(es) y venir(es)

3) 과거분사 → 명사: entrada → entrada(s)

salida → salida(s)

4) 전치사 → 명사: contra → el contra

5) 전치사구 → 명사: por qué → el porqué

23) 이러한 추상적 전환은 부정사가 겪는 명사화, 즉 명사로의 전환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 전환은 부정사의 파생에 이어 곧바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명사화된 부정사는 이미 사전입력시 (en las entradas de diccionario) 명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생각은 동사의 기본이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가정하고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고, 부정사의 파생은 비록 주어나 혹은 목적어가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더라도 문장에서 종속절로의 전환을 가정하고 있다. Cfr. H. Martínez García(1986)는, Op. cit., pág. 45에서 실제로 부정사는 동사적 기저가 <수>, <격>, <관사> 그리고 <남성>을 지배할 수 있는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 6) 문장 → 명사: ¡Alto, el fuego! → el alto el fuego
- 7) 명사 → 형용사: amigo, hombre, etc.
 La amante mía, muy amiga de María, paró su coche en la gasolinera.
 Antonio es más amigo de salir que de quedarse en casa.
 No eres tan hombre como él.
- 8) 추상명사 → 보통명사, 형용사: sinvergüenza, etc.
 Carmen era una sinvergüenza inolvidable.
 Carmen era una chica sinvergüenza inolvidable.
- 9) 비인칭명사 → 인칭명사, 인칭형용사: caradura, etc.
 ¡Qué caradura es Antonio!
 Antonio es un chico caradura.
- 10) 형용사 또는 과거분사 → 전치사: salvo, excepto, etc.
 Todos vinieron {salvo/ excepto} Juan.

반면, 분석적 전환 또는 통사적 전환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다음의 예들을 고려해 보면:

3.1.2. 통사적 범주전환

3.1.2.1. 전치사: 명사, 부사에서 형용사/부사 기능의 SP로의 범주전환

- 1) 명사 → 형용사기능의 SP: la partida de Juan
- 2) 명사 → 부사기능의 SP: El profesor me atiende con cariño.
- 3) <부사 → 명사> → 형용사기능의 SP: amigos para siempre
 el hasta entonces presidente
- 4) <부사 → 명사> → 부사기능의 SP: Te amaré para siempre.

보다시피, 전치사가 전환소로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에서, 명사 Juan을 형용사기능의 SP(de Juan)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전치사는, 기능범주인 전환소로서, 그 통사적 위치에 따라, 명사를 다양한 기능의 다른 범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3.1.2.2. 추상적 통사적 범주전환

- 1) <부사 → 형용사>

El entonces presidente se encargó de ese asunto.

2) <형용사 → 명사>

Apareció con los brazos en alto.

3) <형용사 → 감탄사 → 명사>

Interrumpió la canción con sus bravos.

4) <형용사 → 부사>

a. El hombre golpea fuerte la puerta.

b. El profesor habla alto.

c. El estofado huele divino.

3.1.2.3. 관계절에서의 추상적 전환

1) SADV에서 중성화된 SN로:

Es increíble lo más rápido que ha venido Juan.

2) SA에서 중성화된 SN로:

No sabes lo terriblemente costoso que es.

3) SN에서 중성화된 SN로:

Es increíble lo poca cosa que tiene ella.

위 예문들에서, 부사 rápido, 형용사 costoso, 명사 cosa 등이 또한 중성명사로 범주전환되어 있으며, 그 사실은 중성관사 lo가 앞에 나타나므로 증명될 수 있다.²⁴⁾ 이 마지막 추상적 범주전환은, 통사적 위치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성·수의 중성화를 통해 실현되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통사적, 의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1.2.4. 문장적 범주전환

1) O에서 명사절로의 전환

a. Te vas → Quiero que te vayas.

b. ¿Qué quieres? → Pregunté {Ø/que} qué querías.

24) 이것이 중성관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마상영(1993), "<artículo + que...>구문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4집,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3. <lo + que + ...>구문분석과 §4. 관계구문에서의 추상적 전환(transposición abstracta)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c. Come- pan²⁵⁾ → Quieres comer pan.

2) O에서 형용사절로의 전환

Juan construyó una casa.

→ Mira aquella casa que construyó Juan.

Mira aquella casa construida por Juan.

3) O에서 부사절로의 전환

a. Saldré de casa antes de que llegue mi hermano.

(이중전환(doble transposición)을 통해)

b. Podría viajar si tuviera bastante dinero.

c. Comiendo el pan, caminamos por el parque.

반면에, 1)에서는 전환소들인, 부정사형태소, 접속사 que, 전환소 Ø 그리고 관계사 que가 문장에서 종속절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며, 종속절들은 명사 또는 형용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이한 통사적인 행태들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은 문장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1c)에서는 부정사형태소에 의해 전환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주어와 동일하다. 그러나 que에 의해 전환된 종속절의 주어는 주절주어와 달라야 한다(예외: 전달동사 등). 더욱이, O에서 종속절로의 전환을 통해, 종속절은 1)의 경우 명사적 가치를 얻거나 또는 2)의 경우 형용사적 가치를 얻는다. 그리고 3)에서 보이듯, si와 같은 전환소들은 문장을 부사절로 전환시킨다.

Alarcos학파에서는, 통사적 전환이 복합문 형성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문장은 전환소들의 도움을 얻어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의 범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범주가 다른 범주의 기능을 획득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들은 이런 사실에는 동의하나, 명사 또는 형용사라는 용어 대신에 명사기능 또는 형용사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런 종속절들이, 그 자체로는,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그런 범주들의 기능을 얻게 된 문장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종속절이 정상적인 문장의 변이형(variante)일 뿐이고, 명사, 형용사, 부사와 다른 통사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²⁶⁾는 우리들의 생각이 O에서

25) 이런 단계에서, 이미 동사는 시제를 획득하였으며, 그러나 아직도 일치가 결여되어 있다; 말하자면, 자의적인 주어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장으로 여겨져야 한다.

26) 부사의 기능은 que절에 의해 수행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전치사 - 종속절>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이 구조는 SP로 분류되어진다. 따라서 이 구문에서 전치사의 보어인 종속절은 명사와 동일 위치를 점하고 있다.

종속절로의 전환을 O에서 명사적 또는 형용사적 기능의 문장으로의 범주전환으로 정의하게 한다.

범주전환은, 따라서, 문법범주의 외적인 변화를 야기하건 않건 간에, 기능의 변화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범주전환은 문제의 단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거나, 혹은 그 기능들을 포기하게 하는데 있다.

3.2. 형태소적 요소들을 통한 범주전환

부정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소들이 동사적 어휘소를 각각 명사, 부사 그리고 형용사 기능으로 전환한다는 생각²⁷⁾에 반대하여, 이러한 형태소들이 그것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장의 전환소로서 행동하고, 따라서, 바로 그 문장은 이러한 문장적 형태소적 전환소들에 의거,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J.A. Porto Dapena²⁸⁾는 부정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소들이 동사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문장을 범주전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정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가, 그 자체로는 명사, 부사,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내재적 주어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동사핵의 통사적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다음에서 보게 되듯, 부정사와 명사, 현재분사와 부사, 과거분사와 형용사 사이에 (이 경우는 그 차이가 적지만) 커다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 1) a. el estudiar
b. el estudio
- 2) a. Viene llorando.
b. Viene tarde.
- 3) a. la casa construida
b. la casa bonita

27) Cfr. H. Martínez García(1986), *Op. cit.*, pág. 45: “파생부정사는, 동사의 어휘소가 어떤 명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28) Cfr. J.A. Porto Dapena(1989), *Tiempos y Formas no personales del verbo*, Arco/Libros, Madrid, pág. 145.

1a)에서 부정사 estudiar는 자의적인 내포주어(sujeto implícito arbitrario)를 지니고 있으며, 만약 타동사로 여겨지는 경우, 그 보어를 수반할 수 있다(el estudiar español). 그러나, 1b)에서는 명사 el estudio가 주어나 목적어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추상명사 또는 보통명사 (거주지의미로 쓰인 경우)로 여겨질 뿐이다. 2)에서 현재분사 llorando는 또한 주절 주어와 공지시관계인 내포주어를 전제하고 있다; 반면에 2b)에서는 부사 tarde가 이러한 통사-의미적인 자질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3a)에서 과거분사 construida는 미확인 행위자(agente no identificado)와 수동주어(casa)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현재분사와 똑같은 통사적 자질들이 결여된 형용사 bonita와 거리를 두게 한다. 이런 모든 사실에서 부정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소들은 문장에서 각각 명사, 부사, 형용사 기능의 종속절로 범주전환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점은 서술화의 유지(<외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내재적 주어 + 동사>)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소들은 문장적 전환소들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되었다: 부정사는 그것이 참여하는 문장을 명사기능의 종속절로 범주전환시키고, 현재분사는 부사절로, 과거분사는 형용사기능의 절로 범주전환시킨다.

3.3. 전환소 Ø를 통한 범주전환

이러한 통사전환에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전환소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주전환은 추상적 범주전환과는 상이하다. 문장을 종속절로 변환시키는 전환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추상적 범주전환과 유사하나, 문장에서 종속명사절로의 기능전환을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²⁹⁾ 같은 자리에 전환소 que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간접 의문 또는 감탄절에서, 전환은 의문문의 기본적인 역양을 제거하면서³⁰⁾ 외적인 전환소가 나타나지 않은

29) 이 경우 주동사가 preguntar동사와 같은 문의동사(verbos de pregunta)이고, 종속명사절은 간접의문문이다.

30) J. Martínez Álvarez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반면에 외현적으로 전환소가 없는 전환들이 있다. 의문 또는 감탄 어법에서는 문장이 전환되기 위해 원래의 가능한 역양 분위기를 없애는 “부정적(negativo)” 수단만이 요구될 뿐이다: *No preguntes dónde ha estado, Dime qué quieres, Se extraña de cómo lo hace, No sabía quién era.*” Josefina Martínez Álvarez(1984), “Algunas oraciones complejas y sus transpositores”, *Lecciones del I y II: Curso de Lingüística Funcional (1983-1984)*, Universidad de Oviedo, pág.122.

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J. Martínez는 전환은 의문문의 억양적 상황의 부재에 의해 표시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재는 또한 전환소처럼 해석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J. Martínez Álvarez의 주장에 의거, 우리는 의문절에서 명사절로의 전환에는 전환소 $\emptyset$ 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겠다. 이러한 전환에는 의문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으며, 단지 통사적 변화(문장에서 종속절로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1) Te pregunté: ¿Qué quieres?.

⇒ Te pregunté $\{\emptyset/\text{que}\}$ qué querías.

1)의 전환에서, 직접의문문 ¿Qué quieres?와 간접의문문 Qué querías는 그 의문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문장적 독립성과 의문문의 특징적 억양을 잃게 되고, 그 동사의 시제는 주동사의 시제에 따라 과거로 변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의문문에서 간접의문문으로의 전환을 통해 통사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전환은 기능의 변화 즉, <문장적 ⇨ 명사적>의 변화(문장기능에서 명사기능으로의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시제에 관해서, 간접의문절에서 동사는 주절의 동사에 의해 지배되어 나타난다.

3.4. 추상적 범주전환

이 논문에서, 전환소 $\emptyset$ 에 의한 범주전환과는 상이한 추상적 범주전환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전환소 $\emptyset$ 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표시가 부재하나 전환소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나, 추상적 범주전환은 전환소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단지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³¹⁾ 우리들은 두 가지 추상적 범주전환을 가정하고 있다³²⁾: 파생적 추상적 범주전환과 통사적 추상적 범주전환이 그것들이다.

31) L. Tesnière(1959)는 이미 전환소없는 전환(translation sans translatif)을 가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더욱 상세히 발전시켜, 전환소 $\emptyset$ 를 통한 범주전환과 전환소 없는 범주전환으로 세분하고 있다.

32) 우리들의 추상적 범주전환은, 그 출현이 화자에 의해 결정(파생적 범주전환)되거나 또는 통사상 위치(통사적 범주전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S.G. Ordóñez의 변화언어학적 전환(transposición metalingüística)과 상이하다. Ordóñez의 생각은 단지 명사로의 추상적 전환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훨씬 제한되어 있다. Cfr.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1984a), *Art. cit.*, págs 79-80.

파생적 추상적 범주전환을 통해 전환된 몇몇 통사소들은 이미 사전 속에 어휘 입력(entrada léxica)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예: 이미 보았던 *salida, partida, bien, cantar(es)* 등).

반면, 통사적 추상적 범주전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는 청자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한 어떤 범주에서나 다른 범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a. <부사 → 형용사>

El entonces presidente se encargó de ese asunto.

b. <형용사 → 명사>

Apareció con los brazos en alto.

c. <형용사 → 감탄사 → 명사>

Interrumpió la canción con sus bravos.

d. <형용사 → 부사>³³⁾

Hablan lento.

e. <형용사 → 중성명사>

Me asusta lo bonita que es ella.

f. <추상명사 → 보통명사>³⁴⁾

Tiene muchas esperanzas:

이러한 추상적 전환은 그 통사적 위치에 따라 허용되며, 그 용법은 화자의 자유의사(libre albedrío)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그러한 변환은 어떤 범주의 원래의 통사적 특징들을 바꾸어 놓는다:

i) 일치의 비실현(inmovilización de concordancia)³⁵⁾: 형용사에서 부사로, 형용사에서 중성명사로 등

ii) 일치의 획득(adquisición de concordancia): 부사에서 형용사로, 추상명사에서 보통명사로 등.

더욱이, 이러한 추상적 범주전환은 몇가지 매우 혼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

33) Jean Debois y Otros(1979), *Op. cit.*, pág. 613는 이러한 전환을 탈형용사화(desadjetiva)라고 명명하고 있다.

34) 수일치의 획득이 이 전환의 특징이다.

35) B. Rodríguez Díez(1988)는, "Sintagmas preposicionales concordados", *ARCHIVUM* t. XXXVII-XXXVIII, pág. 278에서, 이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사로의 전환은 형용사의 성과 수의 정지(inmovilización)로 이루어진다."

다. <lo + SN/SA/SADV + que + SN + SV>구문에서, SN/SA/SADV범주들은,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바로 이런 추상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본다; 즉, SN/SA/SADV에서 중성명사로 범주전환되는 것이다.³⁶⁾

형용사에서 부사로의 추상적 통사적 범주전환은 실제 통사상 매우 난해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부가술어와 동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같은 형용사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형용사에서 부사로 통사적 범주전환된 경우

- a. El hombre golpea fuerte la puerta.
- b. El profesor habla alto.

이러한 전환된 범주들은 원래 범주와 상이한 통사적, 의미적 특징들을 보여주는바, 그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여야 할 것이나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음의 유사한 구문들과 비교해 보자.

2) 제2술어(부가소절내 술어)로 쓰인 경우

- a. El hombre golpea furioso la puerta.
- b. El profesor habla enfadado.

1)과 2)의 차이점들은 통사적으로 뚜렷하다. 2)와 비교하여 1)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아직 전무하므로 이점을 부각시키며 통사, 의미적 분석을 시도해 보자. 1)의 밑줄친 형태는 어휘부에서는 형용사이나, 통사상 이미 형용사로부터 부사에로 통사적 범주전환이 일어났으므로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인 일치자질(一致資質)을 상실하였다. 반면에, 2)의 줄친 부분은 통사상 형용사의 위상(位相)을 유지하면서 제2술어로 주어와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주어와 일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1-1) 통사적 범주전환의 경우

- a'. Los hombres golpean {fuerte/ *fuertes} la puerta.

36) 이 구문에서, 추상적 범주전환은 바로 이 통사소를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Cf. B. Rodríguez Díez(1988), *Art. cit.*, pág. 283 y pág. 291, supone la focalización del atributo en esta construcción.

b'. Los profesores hablan {alto/ *al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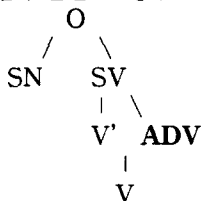
2-1) 제2술어로 쓰인 경우(부가소절내 술어)

a'. Los hombres golpean {*furioso/ furiosos} la pue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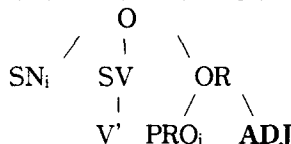
b'. Los profesores hablan {*enfadado/ enfadados}.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지할 수 있 듯, 통사적 범주전환은 통사적 위치에 의거 야
기되며, 성·수의 중화에 의해 일치자질을 상실하고 단순히 동사의 내용을 수식해
주는 부사로 전락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제2술어로 쓰인 형용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위치는 유사하나 실제 통사적 위치는 상이하며, 부가소절내 술어위치를 점
하고 있다. 따라서, 내재주어에 일치하여 변하게 된다. 그 통사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범주전환된 경우



2) 부가소절내 술어인 경우



3.5. 단일 그리고 복합 범주전환

전환은, 우리가 알다시피, 통사론에서 중요한 현상이다. 그리고 범주전환은 홀로,
또는 다른것과 더불어 또는 여러개가 합쳐져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단일 그리고 복합 범주전환의 두 가지 유형을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
각의 범주전환은 통사적·의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몇몇이 합쳐진 채
또한 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단일 범주전환(Transcategorización simple)

a) Aznar afirma [_{Osub} que [_O el Gobierno le utilizó en la guerra del Golfo]].

b) Si los palestinos se declaran allegados a la OLP, nos iremos.

2) 복합 범주전환(Transcategorización multiple)

a) Hezbola intentará todo [_{SP} para [_{Osub} que [_O fracase la Conferencia]]].

b) Te voy a dar la garantía [_{SP} a cambio de [_{Osub} que [_O tú me dejes en paz]]].

1)에서 보여지듯, 전환소를 통한 문장에서 종속절로의 범주전환은 피전환절이 명사기능(1a) 또는 부사기능(1b)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는 문장에서 종속절로의 이러한 범주전환이 주절에 필요한 부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속절은 전치사나(2a) 전치사구(2b)를 통해 종속절에서 부사기능으로의 또다른 범주전환을 겪어야 한다.³⁷⁾ 따라서, 소위 상황절이라고 불리는 문장들은 (비록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중전환을 겪게 되고, 이런 절들은 (3)에서 보듯이 주절내에서 부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3) a. Aquí llevo dos años, desde que se iniciaron las emisiones.
- b. Hemos controlado bien el partido, pese a que no hemos estado bien.
- c. Un niño marroquí está hospitalizado sin que su madre pueda verle.
- d. No se puede vender un producto hasta que se pueda comprar.
- e. Después de que me lo cuentes, podemos seguir hablando.

따라서, <전치사 + 종속절>구조는 명사절(종속절)에서 부사기능의 SP로의 범주전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소위 말하는 부사절은 문장에서 종속절로의 범주전환과 종속절에서 부사기능의 SP로의 범주전환 즉, 두 가지 범주전환을 겪게 된다.

3.6. 관사: 전환소가 아니다.

우리의 이론범주 속에서, 관사는 전환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략된 명사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관사 *el*을 통한 전통적인 범주전환³⁸⁾ 분류방식을 수정하겠다.

- 1) a. 비행용사화: *el rojo*

37) 이러한 전치사구는 이미 통사적 단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_{SP} a [_{SN} cambio [_{SP} de [_{OTp} que [_O]]]]]. 만약 이러한 전환들을 가정할 수 있다면, 각각의 통사적 단위가 독립된 통사단위로서 기능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은, 현실적으로, 다음에서 보듯, 가능하지 않다: "*No me gusta cambio de que tú me dejes en paz*. 더욱이 전치사구 *a cambio de* 속의 명사 *cambio*는, 이 전치사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사를 동반할 수 없다. 따라서, 전치사구는 이미 하나의 통사단위이고, 그 자체내에 어떠한 통사적 전환도 내포하고 있지 않음은 확실하다.

38) Jean Dubois y otros(1979), *Op. cit.*, pág. 613에서 이러한 의견을 발견할 수 있다.

- b. 비부사화: el bien de las cosas
 c. 비동사화: el comer, espero acertar.

이러한 전환에서, 관사가 전환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우리들은 이에 찬동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문들에 대한 다른 설명방법이 존재하는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비형용사화, 비부사화 그리고 비동사화 전환들은 각각 명사핵의 생략구문(1a: *el* (SN) *rojo*), 어휘입력(*entrada léxica*)시의 추상적 범주전환(1b: *bien*(ADV) $\rightarrow$ *bien*(SN)) 그리고 부정사형태소에 의한 범주전환(1c)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이런 구문들에서, 관사는 전환소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용법이 그러한 범주전환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오는 요소가 명시적이건 내재적이건 명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 논거에서는, 관사는 전환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³⁹⁾ 따라서, los coreanos라는 예에서 형용사 coreanos가 관사에 의해 명사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coreanos가 계속 형용사이고 관사 los가 전환소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명사핵의 생략을 가정해야 할 것이다: *los Ø coreanos*.⁴⁰⁾ 그리고 이 명사핵(Ø)은 명사 hombres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coreanos의 의미가 다른 것들: europeo, americano, español 등과 대조를 이룰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los coreanos내 coreanos는 이미 형용사가 아니라 어휘입력시 형용사에서 명사로 추상적 범주전환

39) 많은 기능문법학자들이 관사는 전환소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 중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Alarcos(1991), *Op. cit.* pág. 229. (“의심할바 없이, 관사는 여타 기능의 다른 요소에서 명사로의 전환자이다: [...].[...]”); pág. 242(“인접요소로의 전환은 /que/이고, 핵심적 요소로의 전환은 /el ~ la ~ lo .../이다.”); M^a Ángeles Álvarez Martínez(1986)는, *El Artículo como Unidad Funcional en el Español de Hoy*, Gredos, Madrid, pág. 73에서, 또한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고, 심지어 다음의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시사, 전치된 비한정사 혹은 소유사(가장 약하게)도 전환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 Rodríguez(1988), *Art. cit.*, pág. 277, nota N^o 14에서 관사도 형용사를 동행하여 이를 명사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0) 동일 의견을 A. Bello(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Tenerife, pág. 156, § 5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을 겪은 명사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미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이다. 이러한 이중적 해석은 영원히 모호성(ambigüedad)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2)에서 볼 수 있듯, 문맥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2) a. 명사: Los coreanos viven en la península coreana.
 b. 형용사: Vienen juntos los hombres españoles y los coreanos.

M. Moliner는 *Me gusta el [el color] azul*라는 문장에서 명사핵의 생략을 암시하고 있다.⁴¹⁾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바로 그 문맥에서는 azul이 이미 명사라고 믿는다. 다음의 의역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사실, color azul은 color llamado azul이라는 의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cielo azul은 *cielo llamado azul의 의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에서 명사로의 추상적 전환은 생략의 가정에 우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환을 통해 azul이라는 형태가 사전내 어휘입력시 명사로 등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의 통사적 적용이 불필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의 가정은 또한 통사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관사 + 형용사> 구문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는 형용사에서 명사로의 전환을 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Juan es el [alumno] más alto de todos los alumnos/ el libro rojo de Juan y el [libro] azul de María*.

지금까지, 우리들은 <관사 + 형용사>구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경우는, 관사가 단지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un coreano, los coreanos*, etc. 두 번째 경우에도 관사는 전환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겠다:

- 1) la roja 연쇄는, 문맥을 떠나서 존재할 때, 하나의 단위 또는 범주로 존재할 수 없다.

* el vestido blanco y la roja

- 2) 통사적인 연쇄내에 사용될 때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la casa amarilla y la roja

41) María Moliner의 다음 예를 참고합시다: “Me gusta el [el color] azul.” María Moliner(1983),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A-G)*, Gredos, pág. 323.

이 사실은 형용사 amarilla의 핵과 같은 동일 핵의 선존(preexistencia)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3) 관사와 형용사 사이의 생략된 핵을 복구하면, 그 결과는 더욱 정확히 그 연쇄의 의미를 표현해 준다. 이 사실은 관사가 내재적 핵의 수식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la casa amarilla y la casa roja

4) 이러한 연쇄는 통사적인 의존성(dependencia sintáctica)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관사 la가 형용사를 명사로 전환시킨다면, <관사 + 형용사>연쇄는 독립적인 단위(SN)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이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l edificio amarillo y la roja

5) 종속명사절앞의 관사 el은 그 문장을 전환시키지 않고, 그 뒤에 명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⁴²⁾ 실제, 명사절앞의 el의 존재는 어법(modalidad)과 시제(temporalidad)의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e gusta {que/ el que} {vengas/ hayas venido} pronto.

다시 말해, 하나의 종속명사절은 관사에 의해 선행되어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는 별개로 명사절이다. 그러한 사실은 또한 이 경우 el이 전환소가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다.

6) 더욱이, 만약 관사가 전환소라면, 그것은 일치자질을 결여해야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환소는 기능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는 다음에서와 같이 일치해야 한다.

el cantar - los cantares.⁴³⁾

42) 다음의 생략구문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el (hecho de) que ...*

43) 부정사명사절이 또한 관사 el을 동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일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명사절이 중성의 단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사 *cantar*가 명사로의 파생적 추상적 전환을 겪는다는 우리들의 논거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일단 명사자질을 획득한 후에는, 명사 *cantar*가 일치자질을 획득하게 되고, 관사는 그 수식어로서,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7) Alarcos Llorach는 관사는 보통명사에서 고유명사로의 전환소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유명사는 — 관사를 지니고 있진 않건간에 — 그 자체에 관사가 보통명사에 부여하는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이러한 사실은 조금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관사가 전환소라면, 이것은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가정은 만족되어지지 않는다.

a. El presidente del Gobierno español tiene muchas responsabilidades.

b. El presidente de cada país tiene muchas responsabilidades.

Alarcos의 의견에 따르면, 관사 *el*은 보통명사 *presidente*를 고유명사 *el presidente*로 전환해야만 될 것이고, 그런 사실은 (13a)에 나타나는 것 같으나, (13b)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13b)에서는, 관사가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명사에 최대의 일반화(*máxima generalización*)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 관사에 의한 한정화(*determinación*)를 통해 *el presidente*의 연쇄가 단일가치(*monovalencia*)를 얻게 됨을 인정한다. 실제, Alarcos의 논거에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이유는 <관사 + 명사>가,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객체(*objeto*)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그 둘 사이에 동일성(*equivalencia*)이 부여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한정화는 범주전환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시사와 몇몇 형용사까지 명사를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se niño, único niño, etc.* 따라서, 이러한 한정화는, 수식(*modificación*)의 일종으로, 의미적으로 명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점을 범주전환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주전환에 대한 비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평들 중 한 예로 Jean Dubois의 논거⁴⁵⁾를 들 수 있겠다. 그는, 동사가 단어유형 계층구

44) Cfr. Alarcos Llorach(1991), *Op. cit.*, págs. 232-233: “고유명사는 -관사를 지니진 안 지니건간에- 관사가 보통명사에 부여하는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사의 역할은 보통명사에서 고유명사범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조의 정점을 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거하여, 종속절을 동사파생 전환의 결과로 여기고 있다.⁴⁶⁾ 우리가 보기에는, 절에서 종속절로의 범주전환은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능전환이다. 더욱이, 범주전환을 한마디로 단호히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형태론적 분야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분야와도 동시에 연관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4. 결론

Jean Dubois 등은 범주전환의 개념은 상반될 수도 있는, 상이한 기준들을 개입시켜야 하는 문제점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은 범주전환의 모든 유형들이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범주전환에는 이미 보았다고 다양한 유형이 있다: 파생적 범주전환, 추상적 범주전환, 통사적 범주전환 등등. 그리고 추상적 범주전환과 파생적 범주전환은 분리되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비판은 범주전환에 대한 상세한 분류나 연구의 결여에 기인하며, 피상적 시각으로 보면, 범주전환의 개념이 혼란스러운 점도 있다. 이런 점은 범주전환에 관한 전체적인 분류의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 범주전환은 결과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여러가지 범주전환들이 존재하며, 가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보다 상세하고 통합적인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45) 다음의 비판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전환의 개념이, 모순적일 수 있는 상이한 기준들을 개입시키도록 하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trabajador=que trabaja의 동일성을 지적하는 동의성 기준; 명사적 전환을 특징지어주기 위해 주어, 직접목적어 등의 개념들을 이용할 때의 전통적 기능적 기준; 또한 분포적 기준(예를 들어, 명사는 전치지정사(predeterminantes) 덕분에 특징지어진다): 반대로, 변형은 단지 통사적 동의성에 근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환이론은 자주 통시적 설명을 말 그대로의 기술과 혼용하고 있다.” Cfr. Jean Debois y Otros(1979), *Op. cit.*, pág. 613.

46) 이러한 생각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 문장의 내포에 근거를 둔, 동사의 전환과는 무관한, 생성문법의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Cfr. Jean Debois y Otros(1979), *Op. cit.*, pág. 613. 그러나 동사가 문장의 축이라는 생각은 통사적 중요성을 지니며, 생성문법까지도 이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이후(Noam Chomsky(1986), *Barriers*,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thirteen,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동사적 굴절을 문장의 정점으로 고려하는, 동사적 계층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하면, 범주전환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유형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범주전환의 기본개념과 그 연구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유형에 관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보다 더 심도깊은 분석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통사현상과 결부시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larcos Llorach, Emilio (1991),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3ª ed., Editorial Gredos, Madrid.
- Álvarez Martínez, Mª Ángeles (1986), *El Artículo como Unidad Funcional en el Español de Hoy*, Gredos, Madrid.
- Bally, Ch. (1964),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Francke, Berne.
- Bello, Andrés (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Tenerife,
- Chomsky, Noam (1986), *Barriers*,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thirteen,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Dubois, Jean y Otros (1979),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Alianza Editorial, Madrid.
- Gutiérrez Ordóñez, Salvador (1984), "Conceptos básicos en la teoría de la transposición sintáctica" (en *Lecciones del I y II: Curso de Lingüística Funcional (1983-1984)*, Universidad de Oviedo, Servicio de publicaciones, págs. 63-86.
- _____ (1985), "Sobre las categorías, las clases y la transposición", *Contextos*, III/5, págs. 98-99.
- Martínez, José Antonio (1982), "Acerca de la transposición y el aditamento sin preposición", *AO*, XXXI-XXXII (1981-1982), págs. 493-512.
- Martínez Álvarez, Josefina (1984), "Algunas oraciones complejas y sus transpositores", *Lecciones del I y II: Curso de Lingüística Funcional*

- (1983-1984), Universidad de Oviedo, págs. 121-130.
- Martínez García, Hortensia (1986), *El Suplemento en Español*, Gredos, Madrid.
- Moliner, María (1983),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A-G)*, Gredos, Madrid.
- Porto Dapena, J. A. (1989), *Tiempos y Formas no personales del verbo*, Arco/Libros, Madrid.
- RAE (1983),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 Rodríguez Díez, B. (1988), "Sintagmas preposicionales concordados", *ARCHIVUM* t. XXXVII-XXXVIII, págs. 271-293.
- Sechehaye, A. (1950), *Essai sur la structure logique de la phrase*, Edouard Champion, París.
- Tesnière, Lucien (1969),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ís, 2ª ed., Editions Kincksieck, París.
- Val Alvaro, José Francisco (1981), "Grupos nominales con /DE/ en español moderno (complementos de cualidad)", *LEA* 1-1, págs 49-72.
- 마상영 (1993), "<artículo + que...>구문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4집,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Un estudio sobre la transcategorización en español

La transcategorización o transposición en español participa tanto del campo morfológico como del sintáctico. A pesar de su aparente complejidad de concepto, puede clasificarse si nos atenemos a un criterio más detallado. Además, sirve para aclarar unos campos muy difíciles de analizar con los criterios teóricos más recientes.

Jean Dubois y otros opinan que la noción de transposición o transcategorización presenta el inconveniente de hacer intervenir criterios diferentes, que pueden ser contradictorios. Pero, sus críticas vienen de la consideración de que todos los tipos de transcategorización son iguales, pero la verdad es que hay varios tipos de transcategorización: derivativa, abstracta y sintáctica; y la transcategorización abstracta y la derivativa o sintagmémica deben analizarse por separado. Además, las transcategorizaciones a veces concurren al mismo tiempo. Eso requiere una clasificación global y detallada de las transcategorizaciones, la cual proponemos.

1. Transposición derivativa

1.1. Categorización: <lexema + afijo>

- 1) de lexema a verbo: em + barc- + ar → embarcar
- 2) de lexema a sustantivo: com- + edor → comedor

1.2. Transcategorización morfológica o derivativa:

<sustantivo, adjetivo, adverbio, verbo + afijo>

- 1) de sustantivo a verbo: temor → atemorizar
- 2) de verbo a sustantivo: comportar → comportamiento
- 3) de adjetivo a adverbio: fácil → fácilmente
- 4) de sustantivo a adjetivo: amor + oso → amoroso
- 5) de adverbio a verbo: adelante + ar → adelantar

- 6) de verbo a adjetivo: temer + oso → temeroso

1.3. Transcategorización abstracta

- 1) adverbio → sustantivo: bien → (el) bien
- 2) infinitivo → sustantivo: ir y venir → el ir y venir/los ires y venires
- 3) p. p. → sustantivo: entrada → entrada(s)
- 4) preposición → sustantivo: contra → el contra
- 5) locuc. prep. → sustantivo: por qué → el porqué
- 6) oración → sustantivo: ¡Alto, el fuego! → el alto el fuego
- 7) sustantivo → adjetivo:
Antonio es más amigo de salir que de quedarse en casa.
No eres tan hombre como él.
- 8) sustantivo abstracto → sustantivo común o adjetivo:
Carmen era una sinvergüenza inolvidable.
Carmen era una chica sinvergüenza inolvidable.
- 9) sustantivo [-humano] → sustantivo [+humano], adjetivo [+humano]:
¡Qué caradura es Antonio!
Antonio es un chico caradura.
- 10) adjetivo o participio pasado → preposición:
Todos vinieron {salvo/ excepto} Juan.

2. Transcategorización sintáctica

2.1. Preposición

- 1) sustantivo → SP de función adjetiva: la partida de Juan
- 2) sustantivo → SP de función adverbial:
El profesor me atiende con cariño.
- 3) Adverbio → sustantivo → SP de función adjetiva: amigos para siempre
- 4) Adverbio → Sustantivo → SP de función adverbial:
Te amaré para siempre.

2.2. Transcategorización sintáctica abstracta

- 1) adverbio → adjetivo: El entonces presidente se encargó de ese asunto.
- 2) adjetivo → sustantivo: Apareció con los brazos en alto.

3) adjetivo → interjección → sustantivo:

Interrumpió la canción con sus bravos.

4) adjetivo → adverbio: El hombre golpea fuerte la puerta.

2.3. Transcategorización abstracta en la oración relativa

1) SADV → SN neutralizado: Es increíble lo más rápido que ha venido Juan.

2) SA → SN neutralizado: No sabes lo terriblemente costoso que es.

3) SN → SN neutralizado: Es increíble lo poca cosa que tiene ella.

2.4. Transcategorización oracional

1) O → oración nominal

a. Te vas → Quiero que te vayas.

b. ¿Qué quieres? → Pregunté {Ø/que} qué querías.

c. Come- pan → Quieres comer pan.

2) O → oración adjetiva

Juan construyó una casa.

→ Mira aquella casa que construyó Juan.

Mira aquella casa construida por Juan.

3) O → oración adverbial

a. Saldré de casa antes de que llegue mi hermano.

(Mediante la doble transcategorización)

b. Podría viajar si tuviera bastante dinero.

c. Comiendo el pan, caminamos por el parque.

Como hemos visto arriba, las transcategorizaciones son muy variadas, por lo que, para profundizar nuestras investigaciones con el concepto de transcategorización, no tenemos más remedio que enfocar nuestros esfuerzos a tan solo uno de estos tipos.